

# 교원 온라인 가정학습 역량 강화

##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온라인 수업 지원 라이브 연수 운영

전북교육연구정보원(원장 김갑식)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 수업 지원을 위한 라이브 연수'를 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라이브 연수는 개학 연기에 따른 학습공백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가정학습의 기반과 교원의 온라인 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라이브 연수는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오늘의 교실(<http://school.jeduk.kr/edu-g>)' 라이브 방송 채널을 활용해 제공한다.

주요 연수내용은 △이야기로 나누는 원격 수업, MS팁즈·구글 행아웃·클래스룸 등의 화상수업 도구의 가입부터 활용까지를 준비하는 기본편, 온라인 쌍방향 수업의 사례 중심으로 실제 교원들의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사례편을 제공한다.

교사와 학생 간 온라인 쌍방향 수업과 다양한 온라인 학습형태를 제공해 각 학교에서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 환경 등을 고려해 다양한 원격수업 형태를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김갑식 원장은 "도내 교원의 온라인 가정학습 역량을 강화해 학교 현장에 맞는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효과적인 온라인 가정학습 체계를 준비해 학생과 교원의 온라인 수업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문화재돌봄사업단 서부권역 문화재 특별방역

전북대학교 문화재 돌봄사업단(단장 남해경)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도내 서부권역 문화재 294개소를 특별 방역하고 있다.

사업단은 지난 3월 24일부터 관람객이 많이 찾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4개 팀을 구성해 방역에 나섰다. 1차로 김제 만경향교 대성전, 군산 발산리 석등, 익산 조해영 가옥, 군산 불주사 대웅전에 자체 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대학교 문화재 돌봄사업단(단장 남해경)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도내 서부권역 문화재 294개소를 특별 방역하고 있다.

남해경 단장은 "문화재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꾸준한 방역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문화재 돌봄사업단은 문화재청의 복권기금과 전라북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에 선정돼 3년째 전북 서부권 문화재 돌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도내 지정 문화재 및 비지정 문화재 주변의 잡초 제거, 청소, 환경정비와 같은 일상관리와 벽체보수, 기와보수, 담장보수 등 경미한 부분보수 작업을 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학원 방역실태 현장 집중 지도

### 5일까지 미점검한 학원 위주... 전주 등 6개 시 4774곳 대상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학원 방역실태 현장 점검에 나섰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및 학원 감염병 예방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학원 방역실태 현장 집중 지도'를 오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발표 및 전라북도의 제한적 허용시설 지정에 따라 학원에 방역지침 준수 여부 확인하고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최근 학원에서의 확진자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해외 귀국 어학연수

생 등을 통한 학원 내 감염 확산이 우려되면서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집중 지도 대상은 도내 학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주를 비롯한 6개 시지역 4,774개소다. 이 중 집단감염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중대형 학원 중 그동안 미점검한 학원 위주로, 관리 책임자 지정·예방수칙 게시·예방교육·방역물품 비치 등 학원 감염병 예방 가이드라인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와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자 발열 체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학생간 간격 최소

1~2m 확보, 교습시간 조정, 방역관련 대장 작성·비치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출입자 관리대장에는 발열, 호흡기 증상, 성명,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번 현장 집중 지도는 학원 담당 부서의 전 직원이 참여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휴원 권고와 지자체의 집단감염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대상에 학원이 추가 지정됐으나, 휴원율이 여전히 낮아 학생 안전을 위한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교원 정년 퇴임식

우석대학교는 지난 31일 대학 본관 총장집무실에서 교원 정년 퇴임식 및 명예교수 추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정년퇴임을 맞은 교원은 신상섭(조경학과)·박상익(역사교육과)·김기현(아동복지학과)·정상현(행정학과) 교수다.

명예교수에는 신상섭·박상익 교수가 각각 추대됐다.

남천현 총장은 이날 정부를 대신해 신상섭 교수에게 근정포장을 전달했으며, 정년을 맞은 교원에게 그동안의 노고와 감사의 뜻을 담은 공로패를 전달했다. /뉴시스

## 잊을 수 없는 그날을 기억하며...

### 도교육청, 제6주기 4·16 세월호 참사 추념 행사

전북도교육청은 4월을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달'로 정하고, '잊을 수 없는 기억(그날), 지울 수 없는 슬픔'이라는 주제로 추모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도교육청 1층 갤러리에서 기획 전시전 '기다림과 선물 展'이 열린다. 4월 한달간 세월호 희생 학생의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 바랐던 선물, 아이들이 되고 싶었던 꿈을 직접 그린 미술 작품들이 전시된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쓴 추모와 희망의 편지 '하늘나라 우체통'이 운영되며, 하늘나라 우체통에 모여진 희망편지는 도교육청 앞마당에 제작·설치되는 '기다림의 등대'에 보관하게 된다. 아울러 전북교

육청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노란 리본, 노란 바람개비 등의 상징물을 활용한 기억정원을 조성하고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과 함께 하는 안전 '기억과 약속의 길' 순례,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식, '부채의 기억' 영화 상영 및 감독과의 대화 등도 준비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사 범위와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며 "4·1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교사를 추모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생명, 신체 및 인간 존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체육회,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공모

### 22일부터 24일까지 접수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2020년 학교연계형(한종목) 스포츠클럽'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체육회 클럽육성성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모는 지역 공공·학교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모든 회원이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공공 또는 학교 체육시설을 확보한 지자체와 체육단체(시군구체육회·종목단체·체육관련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 등), 교육청, 대학교, 초·중·고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주 6일

이상 그리고 주 40시간 이상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돼야 한다.

또 전체 회원 목표 달성 및 유·청소년 회원 비율이 50% 이상 유지될 수 있어야 하며 수준별(취미반·심화반·선수반)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선정되면 클럽당 5년간 8,000만원씩 총 4억원이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체육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다음달 28일까지 '2020년 신규 공공스포츠클럽(대도시형·중소도시형) 선정 2차 공모'를 실시한다. /장은성 기자

## 군산대 보령효나눔복지센터, 어르신 긴급지원 서비스

군산대학교가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보령효나눔복지센터(관장 엄기욱, 군산대학교 교수)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지원을 받아 어르신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센터는 최근 보령시 남포면, 미산면, 성주면, 주산면, 웅천읍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

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립 위험 대상군을 선별하여 마음방역 긴급지원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복지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긴급 키트를 제작하여 배분하는 사업이다.

보령효나눔복지센터가 진행하여 지역주민 40여 명에게 무료 식료품과 생필품을 제공했다. /문사=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